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 마련

정부는 2009년 11월에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업·전환, 건물·교통, 농축산 등 부문 및 부문 내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 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은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문 및 업종별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의 국가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09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총 8억 1,300만 CO2톤) 대비 30%'를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부문은 18.2%, 전환은 26.7%, 수송은 34.3%, 건물은 26.9%, 농림어업은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이번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안에서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였다. 각 부문·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은 2020년까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을 넘어서 경제주체에 녹색성장 실천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녹색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녹색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고유가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수산물에도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물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일반 농산물과 수산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수산물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아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조금 제도의 근거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임의자조금의 근거만을 규정하는 등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파프리카, 백합, 감귤, 난, 참다래와 같이 의무자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수산물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법률안에는 농수산물 자조금의 목적 및 정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운영과 평가에 관한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법시행과 동시에 일부품목(감귤,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난 등)이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생산자단체 등과 의무자조금 거출대상, 수납기관, 거출금액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농수산물에 의무자조금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어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생산자 등이 스스로 해당 품목의 수급조절·시장개척·조사연구·소비촉진 등과 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활발해져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0년 농림업 생산액 43조5,233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간 생산량과 전국 평균가격을 곱해 산출한 2010년 농림업생산액이 43조5,23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농업부문은 41조6,774억원으로 전년대비 0.8%, 임업부문은 1조8,459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생산액은 7조9,972억원으로 전년대비 18.9% 감소했다. 쌀(미곡), 보리는 생산량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전년대비 각각 21.8%, 34.3% 감소했다. 채소와 과일은 기상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가격호조로 생산액은 증가했다. 채소는 8조3,533억원으로 전년대비 10.6%, 과실은 3조5,838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축산업 생산액은 가격 호조로 전년대비 6% 증가한 17조4,71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특·약용, 화훼, 버섯 등 기타작물 생산액은 4조2,718억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들깨, 산약, 오미자, 천궁, 양송이, 영지 등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했다. 임업 생산액은 1조8,459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생산액 비중은 축산업(40.2%), 채소(19.2%), 식량작물(18.4%), 과실(8.2%), 특·약용, 화훼 기타(9.8%), 임업(4.2%) 순이며, 축산이 처음으로 40%를 넘은 반면, 식량작물은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쌀(미곡), 돼지, 한우, 닭, 우유 순이며, 이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47.2%이다. 또한 계란, 오리, 딸기, 인삼, 감귤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의 60%이며, 이중 축산업이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조개선 추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6년에 3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3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잦은 계획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가동률 저하, 보완 필요시설 발생, 완공 후 사후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업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자 선정 방식 및 평가지표를 보완한다. 1, 2차 평가 시 가점제도와 평가 후 탈락제도를 도입해 3차 공개발표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단지 유형 및 특성에 맞게 단지별로 10명 내외의 '광역단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중앙에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단지별로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및 3단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사업효과를 분석,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친환경축산 이행률, 화학비료 감축,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등에 대한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모니터링 및 주기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단지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넷째, 매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단지의 사업과정과 민원 등 갈등 해결방법을 벤치마킹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지 임대차기간 최소 3년 보장

농림수산식품부는 “임대차기간(3년 이상) 등 농지임대차 규정 보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제한요건 완화, 농업진흥지역 농지매수창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2011년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의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인도 징집,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전문화, 경영전문인력 참여 등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지소유 제한요건을 폐지했다.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인근의 농업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경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이용 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출처:입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물 생육촉진·면역력·내한성 돕는 미생물 개발

— 농진청, 고추뿌리에서  
친환경 미생물 'BS07M' 분리 —

작물의 생육을 돕고 각종 병과 추위에도 잘 견디게 해주는 미생물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고추의 뿌리에서 작물의 생육촉진·면역력·내한성 등을 증가시키는 ‘바실러스 발리스모르티스(Bacillus vallismortis) BS07M’이란 균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BS07M’ 균주는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옥신(auxin)’과 같은 식물 생장호르몬을 분비한다. 이에 작물의 뿌리에 이 균주를 처리하면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뿌리가 잘 자라며 잎의 엽록소를 증가시키는 등 작물의 생육을 도와 수확량을 증대시킨다. 실제 고추에 실험한 결과, 약 10%의 증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BS07M 균주는 작물병원균에 강력한 항균활성을 가지는 2종의 펩타이드 유도체 성분을 생산해 작물의 역병, 탄저병, 무름병, 푸른곰팡이병 등 9종의 주요 작물병 발생을 크게 감소시킨다. 실제로 BS07M 균주를 처리한 고추와 무처리한 고추에서의 탄저병 발병 비교실험에서 5배 정도 발병 억제 효과가 인정됐다.

BS07M 균주는 추위에 견디는 내한성도 크게 증가시켜 BS07M 균주를 처리한 오이와 담배의 경우 4℃(12시간/일)의 저온에서도 각각 95%와 100%의 저온피해 방제율을 나타내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BS07M 균주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 포장실험을 수행하고, 지난 7월 26일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평가회를 개최하는 한편, 현재 국내외에 특허출원을 신청하고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팀 연구관은 “BS07M 균주는 작물의 생육 촉진, 병 면역력 증가, 저온피해 예방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 미생물로 친환경 농작물 생산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농촌진흥청>

## 농식품 인증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

앞으로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 형태 하나만 기억해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총 9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공통표지는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과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인장)’ 모양의 사각프레임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식품’과 ‘국가인증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표지 내 명칭은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불필요한 수식용어는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색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이미지를 대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선호하는 ‘초록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다양한 포장재와 포장형태를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보조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표지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망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공통표지 도입은 그동안 각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11년 농림수산식품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한 34.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의 특성상 수확기인 하반기 수출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2008년 하반기에 ‘2012년 농림수산식품 100억 달러 달성 대책’을 수립한 이후 최초의 연도별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상반기 수출액은 부류별 고른 증가세를 나타냈고, 수출액이 5,000만 달러 이상 품목이 전년도 7개에서 올해 12개로 크게 증가해 수출 규모화에 대한 전망이 밝다. 규모가 5,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반기 큰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으로는 막걸리, 미역, 고등어, 전복, 유자차 등이 있다. 특히, 막걸리 수출은 일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43%나 증가해 상반기에 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국가별로는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여 대만(67.9%), 중국(57.4%), 아세안(54.4%)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증가율 유지했으며, 올 초 감소세가 컸던 러시아 수출은 5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주요 수출국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월간 수출 실적은 3개월 연속 6억달러 선을 유지하며,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상반기 수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농식품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높은 중화권, 아세안의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판촉행사 개최, 한류열풍을 이용한 수출 농수산물 홍보 등 품목별·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㉓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